

연중 제 22 주일

기도서 425면(B해)
 제1독서: 신 명 4, 1-2, 6-8
 제2독서: 야 고 1, 17-18. 21b
 -22, 27
 복 음: 마 르 7, 1-8. 14-15,
 21-23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마르 7.15).

□ 강론

이 시대의 박해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순교자들의 목을 자르던 박해자들의 칼날이 칼집에서 녹이 슬도록 세상이 바뀌고 또 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순교의 현실이 이 세상에서 없을 듯하다.

그러나 방법과 형식이 달라졌을 뿐 천주와 교회를, 진리와 사랑을 위한 순교자들의 거룩하고 용감한 증거의 생활은 오늘도 변함없이 요청되며 여기저기서 실현되고 있다. 과거의 순교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박해 세력과의 거룩한 투쟁에 생명을 바친 데 비해, 오늘의 순교자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천주와 교회를 위해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를 자신이 칼 없는 박해자들의 불타는 증오심의 화신이 되어 주님의 많은 역군들과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노력하는 용사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앞장서고 있지나 않은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교회의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는 교회 밖에서 보다 교회 안에서 겪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신앙생활의 노력에 대해서, 또는 좋은 지향을 가진 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어떤 감정의 대립으로 훼방과 박해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이다. 또 순교의 정신은 획일적인 강요가 아닐진대 더러는 어떤 한 개인의 고집과 아집으로 참으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진리와 정의로운 일들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비방을 받는다면 이 또한 박해가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내실을 정화하며 쇠신을 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히려 피를 더 많이 흘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순교정신의 전승을 지켜가는 신앙적인 후손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순교정신으로 피를 더 흘려야 하고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신조 순교자들이 그랬듯이 참으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일로 해서 교회 내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들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자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무혈의 순교자들이며 무서운 정신적인 박해와 억압속에서 진리를 밝히고 증거하는 현대적인 순교자들 일 것이다.

9월, 또 순교자의 달을 맞이하면서 교회내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히려 박해자가 아니었던가 하는 반성과 함께 참다운 순교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다.



내 탓이요!

정부는 공직자 사회의 무사안일 풍조에 대한 척결과 함께 책임행정의 기풍을 진작시키겠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하나의 예로, 책임행정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책임도 물으라는 말이다. 잔가지 몇개 치고 정부의 책임을 벗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소몰이」만 해도 그렇다. 책임지겠다는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자는 없고, 피해를 본 농민들과 애꿎은 경찰들만 맞아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무어라고 설명할 것인가! 중공 전투기가 이리 시내로 곧두박질쳐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도 을지훈련이 끝나는 날에.

한 지역의 인구가 성장해서 면이 읍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자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더 큰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도 입안할 수 있다. 조촌면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진주시와 맞붙어 있는 조촌면은 당연히 진주시로 편입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중학교 학군)와 경제문제(시내버스 요금때문에 1년이면 2억원 가까이 손해)를 지역주민들은 들고 있다. 그리고 이는 또 진주시의 성장과도 직결되어 있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다시 시에 편입된다면 편제 조정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고의 낭비를 가져올 것인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아쉬워 하면서,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여당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기도 한다.

지금은 순교자의 달이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생명 바치신 것이다. 우리도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내 탓이요」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순정이 산책



이 제 부 터 시 작 을.....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의—

1987년은 우리 교구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치교구로 설정되어 출발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50주년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고 이를 계기로 교구의 발전을 다짐하고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새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상을 정립,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구현코자 지난 85년 3월에 이미 50주년 기념중앙위원회를 발족, 그동안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지난 8월 19일 성직

자 수도자 평신도와 제단체 대표를 총망라, 기념총회를 가진바 있다. 이 총회에서는 4개분과위원의 사업시안 발표에 따라 각 지구별로 구체토론을 거쳐 사업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8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 검토되어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안이 최종적으로 수립된 것이다.

50주년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1. 50주년 기념규정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주교님의 인준을 받았음

2. 각 분과별 사업내용 결정

1) 정신분과(위원장: 김진소 신부)

가) 기도—①기도문 작성하여 각 본당 실정에 따라 기도 실시

②성체 강복 및 성체헌시

나) 정신교육—순교자의 생애와 신앙심, 자치교구의 특이성과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다) 시복운동—교구내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운동 일환으로 시복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복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사업

라) 교구사 편찬—계속된 사업의 마무리로 교구사를 편찬

2) 사업분과(위원장: 범석규 신부)

가) 천호성지에 피정센터 건립

나) 기념관 개설—현 전동성당 사제관을 시설 보완하여 기념관으로 개설

다) 이 누각때 동정부부의 생가터 매입, 개발

라) 치명자산 개발—남원방면 4차선 도로에서 누

각따 묘역에 이르는 순례의 길 개발과 환경정리 및 성인 이명서 묘역 정리

마) 성지 여산에서 고산 천호를 잇는 순례의 길 개발

바) 숲정이 성지개발 사업 계속

3) 행사분과(위원장: 성민호 신부)

가) 기념축일 행사—50주년이 되는 1987년 10월중 주교단 초청 및 타 교구에 거주하는 전주교구 출신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 초청 기념대회 개최

나) 그외, 각종 신심행사와 대 사회봉사 활동 전개

4) 재정분과(위원장: 문정현 신부)

50주년 기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성직자, 평신도 및 교구에서 공동 지원한다

3. 그외 사업으로

가) 50주년 기념성당으로 5개본당 신설하고

나) 10만 신자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다) 50주년 포어와 기념마크를 공모 제작한다.

이런 모든 사업과 행사 및 기도는 금년 대림 첫주일에 서부터 시작하여 87년 그리스도 왕 축일에 맺는다.

순교 성인들이여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이들!
뉘라서 그 신덕을 뒤따를 수 있을까
뼈속을 파고드는 잔혹한 형벌도
눈앞에서 춤추는 망나니의 칼날도
희디흰 고결함과 대쪽같은 신앙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불꽃처럼 타올라
시성의 영광을 차지한
103위 순교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마기환 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 마기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다방2층)

동 태극당

서 오거리

←전동성당 동년제과로

마기환안과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각종 닭 판매

명랑 닭 집

교우 여러분들께는 열가로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판매합니다.

위치: 대야 우시장 입구

김 베 드 로

교 구 소 식

- ※ **축! 건진** : 월명동 천주교회, 9월 8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사제 평의회 : 9월 3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재정 참사회 :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교구청
 3. 제13차 마리아 푸른군대 피정 : 일시-9월 5일(목) 10시~17시(파견미사 있음)
장소-전주 덕진성당, 강사-김준호 신부님·강용웅 회장
준비물-1천원·도시락·피정도구(셀책) 및 미사도구. 대상-일반 남녀 모든 교우
 4. 신앙대학 2학기 등록 : 9월 7일까지, 등록처-교육국(☎ 0041)
개강식-9월 9일 오후 7시 30분, 교육관
 5.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9월 월례 모임 : 9월 9일 6시 30분
대상-교리교사 교구·지구임원 및 각 본당 회장
 6. 재속형제회 전북지구 주관 1일피정 : 장소-노충성당, 회비-1천원
일시-9월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강사-김창재 신부(프란치스코 한국 연합회 지도신부), 오웅진 신부(꽃동네)
참석대상-형제회원은 물론 교구내 뜻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 바람
 7. 9월 성소자 1일 피정 : 일시-9월 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례-민음의 성장
대상-중학생(남자), 회비-2천원,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성서·필기도구·성가집
 8. 군·육지구 각 본당 모지관리위원회 : 오늘 오후 5시, 팔마성당
 9. 군중후원회 월례미사(제대 사제들 환영미사) : 9월 2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 성당
 10. 십지정환(디디에) 신부 모친 선종+
지정환 신부님 모친께서 지난 8월 26일 오전 5시에 선종하셨습니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 **축! 영명** : 성 모이세(9월 4일) 이상섭 신부님 축하합니다

원고모집

월간농촌 사목지 「주님의 날」에 실을 신자 여러분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시·수필·독후감·신앙체현·전교활동·농사법·공소소개·상담 등 농촌교회 생활에서
일어난 소박하고 아름다운 내용이면 됩니다.
원 고 : 5~8매
보낼곳 : [520] 전주시 서노충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잠깐!

지금 당신 옆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다”-눈을 친자같이 아래로 내려뜨고, 고개도 못든 채, 그저
콧수로 굽신거리면서 평화를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습다.
평화를 구걸하는 것인지, 나누려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고, 그래서 한 형제임을 이 순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다. 어찌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인가?
자-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손을 맞잡자. 그리고 웃으며 밝은 얼굴로 정다운 인사를
나누자, 그리고 평화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또 같이 나누는 것이다.

요심이 (630) 김병오

나는 앞으로 T.V 뉴스는
않 믿을테야

오해?

중공공용기를 우리공군기가
군산비행장으로 유도했다고
T.V에서 방송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중공기만
이리까지 단독으로 날아와...

용수루에 쳐박혔느냐
그말이야...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점별점(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밝은 눈, 맑은 눈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희소식!
독사뱀 물린사람 전문 치료
함. 五代제
연락처 :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시내버스 번호 ③④⑤번차
전화 ③ 3544
송준의(발라바)

군산 태 광 약 국
☎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김종환 치과 의원

신라당
팔달로
주택은행
대화병원
조흥은행

원장 김종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의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흥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들, 사도회 임원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전 9시
 3. 견진성사 신청하세요: 접수마감일-15일까지
신청서류-영세, 증명서, 견진신청서(사무실에 비치)
견진일-10월 6일
 4. 전자올겐 기금 신입합시다: 김춘택-10구좌, 우아
아파트4구역-8구좌, 서복래-3구좌, 송명준-2구좌
서미란·김성중·박계출·안은주·이원규·정인태·
박정녀·황루시아·정진욱-각1구좌씩
계-160,000원 누계-2,440,000원
 5. 감사합니다: 타본당 신자분(익명)신축금-10만원
 6. 분당 올드레아: 오늘 저녁 8시
남녀 푸르실스마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7. 예수 성심회 월례회: 3일 어머니미사 후
 8. 공소회장단 회의: 3일 오후 3시, 다리티공소에서
 9. 공소 순회미사: 7일 저녁 8시, 황운리공소
 10. 금주의 전례담당: 제2조, 차주는 제3조가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17,385원 교무금: 362,000원
신축금: 86,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자모회: 3일 오전 10시30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5. 주일학교 개학: 8월 31일부터 시작
교리-오후 3시, 미사-오후 4시
6. 9월은 순교자 성월: 매 미사 후
순교자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 독서	2 독서	기 도
첫 미 사	함문권	문치구	전영택	성 심 회
공식미사	김배근 문미옥	한상철	박중순	정의의 동정녀 pr
저녁미사	강경화	김광택	이복남	윤 옥 순

- 지난주 봉헌금: 일반-337,610원
중·고생-9,600원, 주일학교-7,070원
계-354,280원 교무금: 322,5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지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훈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9월 7일 오전 11시
 3. 주일학교 자모회: 9월 3일 오전 11시
 4. 자모회 소식: 피정-7일 오전 9시부터 소강당
미사-8일(주보첨례)
양일간 도시락 지참 안해도 됨(식사 제공)
 5. 수세식 화장실 공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다음주 봉헌담당: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김희진,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8. 성가정회: 9월 1일 12시
- ☆ 축! 영명: 조레지나 수녀님(7일)
김그레고리오 회장님(3일)
다음주 공식미사 후-축하식
- 지난주 봉헌금: 889,220원 교무금: 823,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9월은 순교자 성월
 2.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4. 복자부녀회: 7일 오전 10시
 5.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6. 예비자 수요일 교리반: 18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함
 7. 첫영성체 교리: 2일부터 시작
대상-국민학교 4학년이상, 오후 4시 강당에서(부모
님들의 교우인 자녀)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8. 김누시아 수녀님 피정: 3일~12일까지
 9.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김운자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정동민 ②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189,040원 교무금: 455,1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구역 대의원회: 공식미사 후
 2. 봉사: 어린이 및 노약자 이발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4. 9월은 순교자 성월: 특별히 순교자의 피로 이어진
우리의 신앙을 더욱 빛낼 수 있는 9월이 되도록 노
력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4,770원 교무금: 35,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주부 성서대학 개학: 4일 오전 10시
 2. 중·고생 전체모임: 오늘 10시
 3. 오늘: 사목회-11시30분, 꾸리아-오후 2시
 4. 주일학교 개학: 7일 오후 4시
 5. 성모 기사회의: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6. 구역기도 모임: 효자1단지 6동 107호
9월 3일 오전 10시, 김루피나씨 댁
 7. 건축헌금(납입자)
백명연-30만원, 임상철-10만원, 심숙자·박순자·
익명-5만원, 임은주-3만원, 이선희-2만원, 이기
남·박선희·김재규·익명·정옥월·조선자-1만원
권정순·한명희-5천원
- 지난주 봉헌금: 487,580원 교무금: 247,000원
건축헌금: 670,000원